그 날은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날이었다. 브라이트 문 최고급 식당인 이 곳에서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식당을 둘러싸는 완전히 투명한 돔형 천장을 통해 에더리아 저 너머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별을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호르드 군 아래 지배에 있다가 평화를 맛보게 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그 날 저녁 데이트를 하러 온 아도라와 캣트라도 마찬가지였다. 예약을 하고 수 개월을 기다린 뒤 별들이 가장 잘 보이는 식당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디저트로 와플 과일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디저트를 내 온 웨이터에게 감사 인사를 한 아도라와 캣트라는 다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좀 먹어. 브라이트 문 온지도 꽤 됐잖아.”

아도라는 캣트라가 와플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며 킥킥 웃었다. 호르드 프라임을 물리친 날부터 1년 째 정식으로 사귄 커플이었지만, 아도라는 여전히 캣트라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맛있는 걸 어떡해.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나 됐네. 저 하늘 위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렇구.”

그렇게 말하면서도 캣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어댔다. 마치 그게 처음으로 먹어보는 아이스크림인 것처럼.

“맞아 캣트라. 그래서…. 오늘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캣트라의 고양이 귀 한 쌍이 쫑긋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날에 아도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캣트라 건너편에 앉아 있는 아도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 싶었다. 오늘 밤의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날 따라 유독 더 많이 뜬 별들 때문인지 아도라의 금발 머리는 평소보다도 더 찰랑거리는 거 같았고, 캣트라를 사로잡은 아도라의 푸른 두 눈도 별빛을 받아 더 반짝이는 거 같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주의 전사이기도 한 여자친구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평소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도라였지만, 이제 하려는 말의 무게 때문인지 아도라는 얼굴을 살짝 붉히고 작게 헛기침을 했다.

“캣트라야, 너도 알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하고, 저 하늘 위 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그런 만큼 오늘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캣트라야...? 괜찮아...?”

아도라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캣트라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캣트라를 계속 봐 온 아도라였지만, 그런 반응은 처음 봐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눈치가 없기로 유명한 아도라는 당연히 혼자서 이상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설마 내 프러포즈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설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러나 사실 그 순간 캣트라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짝거리는 반지를 한 번 슥 보고 아도라의 푸르른 눈을 한 번 다시 슥 본 캣트라의 머리 속에는 아도라에게 빠져들게 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

사실 캣트라는 언제 처음 아도라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도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는지, 유치원생 쯤 되는 나이부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도라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청소년기에 호르드 훈련군 시절부터 아도라를 좋아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났다. 그만큼 호르드에서 만나서 같이 컸을 때부터 아도라랑 함께 한 추억이 많아서일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했다. 분명히 아도라가 검을 찾으러 호르드군을 탈영하기 전부터 아도라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호르드 시절 둘은 많은 추억을 쌓아 올렸다. 캣트라는 항상 잠을 잘 때마다 더 좁은 곳에서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아도라 발치에서 잠을 잤다. 로니를 포함한 다른 훈련생들이 캣트라를 놀리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캣트라는 아도라가 ‘절친’이니까 그런다고 버럭 화를 내며 변명했다. 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캣트라는 사실 속으로는 아도라를 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린 캣트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캣트라는 아도라가 자기 편을 들어줬을 때마다, 같이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근육이 탄탄한 아도라의 몸 위로 땀이 흐르는 모습을 흘끗 봤을 때마다, 그리고 아도라가 바보같은 말을 했을 때마다 아도라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살살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저 ‘친구’이기만 했다면 캣트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과거의 아픈 기억도 스멀스멀 피어 올랐다. 이 아픈 기억들은 대부분 아도라가 탈영을 하고 반란군 측에서 쉬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다. 아도라는 분명히 호르드 군 시절 캣트라를 항상 보호해 줬다. 셰도우위버가 캣트라를 질책할 때마다 캣트라를 변호해 준 건 항상 아도라였다. 캣트라가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길 때도 캣트라를 치료해 준 것도 바로 아도라였고, 무엇보다도 다른 훈련생들이 은근슬쩍 캣트라를 따돌릴 때 곁에 남아 유일하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준 것도 아도라였다. 솔직히 아도라가 없었더라면 지금 캣트라가 브라이트 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도라가 탈영한 뒤 캣트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제 막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절친, 아니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도라를 응원해주거나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캣트라는 오히려 아도라의 목숨을 여러 번 위협했다. 그리고 아도라를 짓누르고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캣트라는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아도라의 친구들을 납치한 일, 세상을 다차원의 공간으로 밀어 넣어 에더리아를 없애려 한 일 등이 있었다. 게다가 캣트라는 아도라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라는 지금 프러포즈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지난 1년간 자신을 향한 아도라의 마음을 천천히 확인했지만, 캣트라는 자신이 아도라에게 상처를 입힌 순간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캣트라의 눈은 여전히 반지를 향하고 있었다. 캣트라의 두 눈처럼 푸르고 노란 보석들로 꾸며진 반지는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온 에더리아를 다 찾아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반지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게 분명했다. 반지의 색깔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날 분위기 때문인지 그 반지는 캣트라의 영혼과 아도라의 영혼, 그리고 아도라의 사랑을 한 곳으로 모은 결정체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아름다운 반지를 흔쾌히 받아도 될까. 반지를 점점 더 뚫어져라 쳐다볼수록 반지의 아름다움과 과거에 자신이 아도라에게 했던 추한 행동들 또한 점점 더 극명히 대비되었다. 이윽고 그 선명한 차이를 캣트라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는지, 캣트라의 숨이 점점 더 가팔라졌다.

“캣트라!!!!”

“고마워… 근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헙, 하고 간신히 숨을 참으며 캣트라는 이 말을 꺼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것을 막기에는 쉽지 않았다. 아직 이 반지를 받기에는 너무 이른 거 같았다. 아직도 에더리아 곳곳을 보면 호르드 군 때문에 입은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캣트라는 잠시나마 호르드의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흔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에더리아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자신이 우주의 영웅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 우주의 영웅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도 자신이라면, 그 반지를 받을 자격이 더욱 없어지는 게 아닐까.

“…너 설마 우리가 사귀기 전 2-3년간 일들 생각하는 거야?”

“…”

바보 아도라. 얄밉게도 이럴 때만은 눈치가 빨랐다. 하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도라가 눈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캣트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아직 남아 있는 상처는 천천히 같이 치유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도라는 캣트라의 손을 꼭 붙잡았다.

“너가 무슨 생각 할지 대충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거야. 약속할게.”

이 말을 하며 아도라는 조금 더 세게 캣트라의 두 손을 붙잡았다. 바보. 바보. 캣트라는 자신이 아도라에게 준 상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도 바보 아도라는 캣트라가 입은 상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뭐 어떤가. 캣트라는 이미 아도라의 순진무구함에 깊이 빠져든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도라를 오래 전부터 계속 좋아했다.

“…약속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짧은 말 한 마디였지만, 그 한 마디에는 캣트라와 아도라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아도라는 매번 캣트라 옆에 있어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매번 지키려 노력했다. 중요한 약속을 하려 하는 지금 자기 눈 앞에 있는 아도라와 어릴 때 친구가 되어 주겠다 한 아도라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아도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활짝 웃으며 캣트라에게 약속을 다시 한 번 했다.

“응. 약속해.”

그 말을 듣자마자 캣트라는 아도라를 꼭 껴안았다. 원래 감정표현을 잘 안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고마워. 그리고… 나도 같은 걸 약속할게. 진짜로.”

그렇게 아도라에게 약속한 캣트라는 마음 속의 커다란 짐 하나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드디어 자신도 아도라에게 무언가를 해 줄 수 있었다. 아직 실천을 해야 했지만, 평소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캣트라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 말은 진심이 많이 섞인 말이었다. 아도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캣트라를 더 꼭 안아줬다.

캣트라를 껴안는 것을 멈춘 아도라는 캣트라의 왼손에 반지를 껴 줬다. 저 하늘 위 별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반지가 그 둘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금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 같았다. 그 날은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때마침, 에더리아의 하늘 주위를 도는 거대한 나무도 식당 위를 맴돌고 있었다.

**-By. 쭌쭌이 (트위터 아이디 @ ZzunZzun98)**